

한-이란 간 문화·관광 분야 교류 협력 논의

- 7. 24. 최휘영 장관, 이란 문화유산·관광·수공예부 장관과 면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7월 24일(금)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이란 문화유산·관광·수공예부 세예드 레자 살레히 아미리(Seyed Reza Salehi Amiri) 장관을 만나 한-이란 간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장관은 먼저, 살레히 아미리 장관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향후 역내 평화와 안정이 회복되면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살레히 아미리 장관은 문화·관광 분야 발전의 성공 사례로서 대한민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전하며, 추후 문화유산, 전통공예, 콘텐츠, 관광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따로 붙임 현장 사진

담당 부서	문화미디어산업실 국제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인숙진 (044-203-3311)
		담당자	사무관	이나은 (044-203-3312)